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을 활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의 모색

백지연*, 이은애**, 정창록***,****

요약

2005년 10월 19일 프랑스 파리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은 의학, 생명과학 및 관련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그 사회적, 법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룬다. 유네스코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실천을 위해 전 세계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프로그램(UNESCO Bioethics Core Curriculum)’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이 번역, 출판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필자들은 국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네스코 생명윤리교육과정을 한국의 의대, 약대, 간호대를 비롯한 보건 의료 관련 대학 학생들의 도덕에 관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먼저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생명윤리와 보편적 인권선언과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의 목적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으로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및 사례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프로그램 중 사례집을 활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의 구체적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방안(교수학습방법으로 콜버그[L. Kohlberg]의 딜레마 토론법[Dilemmas for Moral Reasoning]을, 학습평가방법으로 레스트[J. Rest]의 도덕 판단력 검사법[DIT-Defining Issues Test])을 제안하고 있다.

색인어

유네스코,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교육, 토론교육, 생명윤리교육과정

교신저자: 정창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회연구원.

* 대구동촌중학교 교사,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 ** 성주고등학교 교사,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윤리교육과 석사과정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회연구원

**** 현재 소속: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Tel: 053-950-5868, Fax: 053-950-5947, e-mail: canthos@hanmail.net

I. 시작하며

2005년 10월 19일 프랑스 파리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생명윤리와 보편적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이하 생명윤리선언)’은 의과학기술로 말미암은 이익과 해악을 윤리적 원칙의 틀 안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틀 안에서 인간 생명과 인간 존엄성 존중을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유네스코는 이 선언을 기반으로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프로그램(UNESCO Bioethics core curriculum-이하 생명윤리핵심과정)’을 개발, 보급하였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된 생명윤리선언을 핵심으로 하는 생명윤리교육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의과대학 학생들과 생명과학 관련 연구자 및 여타 의료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네스코의 생명윤리 핵심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틀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력과 실천적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필자들은 국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네스코 생명윤리교육과정을 한국의 의대, 약대, 간호대를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대학 학생들의 도덕에 관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우선 유네스코 생명 윤리 핵심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국내 의학, 생명과학 및 관련 기술 연구자들을 위한 유네스코 생명 의료윤리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2장에서 유네스코 생명 윤리 핵심 교육과정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생명윤리선언을 소개하고, 유네스코 생명 윤리 핵심 교육과정의 목적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 유네스코 생명 윤리 핵심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및 사례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4장에

서는 유네스코 생명 윤리 핵심 교육과정 프로그램 중 사례집을 활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 및 평가 방안을 교수학습방법으로 콜버그(L. Kohlberg)의 딜레마 토론법(Dilemmas for Moral Reasoning)과 학습평가방법으로 레스트(J. Rest)의 도덕 판단력 검사법(DIT-Defining Issues Test)을 중심으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II. 유네스코 생명 윤리 핵심 교육과정의 형성 과정

1. ‘생명윤리와 보편적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유네스코는 1945년 11월 16일 설립되었으며 이후, 2005년 10월 19일 프랑스 파리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생명 윤리와 인권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유네스코 191개 회원국이 합의한 생명윤리원칙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독자적인 행정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와 집중적인 집필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선언은 각 회원국들에 있어 공통된 생명윤리의 국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1]. 생명윤리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의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1997년 11월 11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인간 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그리고 2003년 10월 16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인간 유전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The International Declaration on Human Genetic Data)’을 바탕으로 하며 또한, 1997년 채택되고 1999년에 시행된 유럽 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생물학과 의학의 응용에 관한 인

권과 인간 존엄성 보호 조약: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Dignity of the Human Being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Biology and Medicine: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및 그 부가 협정들, 또한 생명윤리 분야의 국가 법령, 그리고 생명윤리 분야의 국제적 지역적 행동 강령, 지침, 기타 문서들과 1964년에 채택되고, 1975년, 1989년, 1993년, 1996년, 2000년, 2002년에 수정된 세계의사회(WMA)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를 위한 윤리 원칙에 관한 헬싱키 선언(The Declaration of Helsinki of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on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1982년 채택되고 1993년, 2002년에 수정된 국제 의과학 기구 평의회(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의학 연구를 위한 국제 윤리 지침(The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 선언을 인권 법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생명윤리선언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도덕적 책임을 중심으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출현하는 문제들을 명확히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동을 이끌 보편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다. 또한 의학, 생명과학 및 기타 관련 의공학기술들의 윤리적 문제들에 관한 결정이 개인, 가족, 집단, 공동체 그리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한다. 유네스코는 선언을 통해 의과학기술 발전은 도덕적 감수성과 윤리적 반성능력을 전제로 하며, 과학 기술의 진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

'생명윤리선언'의 목적은 첫째, 각국의 의료에 있어 법률, 정책, 행위 지침의 제공, 둘째,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간 생명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 셋째,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의 촉진, 넷째, 의학,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공유의 촉진, 다섯째,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 보호, 여섯째, 생물다양성 보장이다. 선언은 제3조 인간 존엄성과 인권(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제4조 이익과 해악(benefit and harm), 제5조 자율성과 개인의 책임(autonomy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제6조 동의(consent), 제7조 동의 능력 없는 사람들(persons without the capacity to consent), 제8조 인간의 취약성과 인격에 대한 존중(respect for human vulnerability and personal integrity), 제9조 프라이버시와 기밀성(privacy and confidentiality), 제10조 평등, 정의, 형평(equality, justice and equity), 제11조 차별과 낙인 금지(non-discrimination and non-stigmatization), 제12조 문화다양성과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pluralism), 제13조 연대와 협력(solidarity and cooperation), 제14조 사회적 책임과 건강(social responsibility and health), 제15조 이익의 공유(sharing of benefits), 제16조 미래 세대의 보호(protecting future generations), 제17조 환경, 생물권, 생물다양성의 보호(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e biosphere and biodiversity) [2]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유네스코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은 위에서 제시한 선언의 각 조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3조 인간 존엄성과 인권, 제4조 이익과 해악에 관한 사례집은 이미 개발되어 공개되고 있다.

1)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UNESCO Sitemap. Available from: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bioethics/bioethics-and-human-rights/> [cited 2016 May 31]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사이트의 '생명 윤리 인권 보편 선언' 번역본을 참조함.

2. 유네스코 생명 윤리 핵심 교육과정

유네스코와 국제과학협의회(ICSU)의 후원 아래 스페인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1999년 세계 과학 총회는 모든 과학자들에게 과학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일깨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32번째 유네스코 총회(2003)에서 회원국들은 생명윤리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영역에 있어서도 윤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하는 것에 동감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에서 보고된 윤리 교육 선언(2003)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의 윤리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에 ‘윤리 교육 프로그램(EEP-Ethics Education Programme)’을 시작하였다. EEP는 세계과학원(TWAS), 생명 윤리 유네스코 대표 의장들, 세계의사회(WMA)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IBC)의 구성원들을 포함한 윤리교육 자문 전문가 회의의 설립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는 학생들에게 2005년 생명윤리선언의 생명 윤리학적 원칙들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에 발표된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1].

유네스코 생명윤리교육은 ‘생명윤리선언’의 윤리학적 원칙들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윤리교육자문 전문가 위원회(The assistance of the UNESCO Advisory Expert Committee for the Teaching of Ethics)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유네스코생명윤리교육과정은 총 2권이 개발되었다. 1권은 교육과정의 각 부분에 대한 교육목적, 교수요목과 교수자 매뉴얼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1권: 교수요목(Bioethics Core Curriculum Section 1: Syllabus)’이며, 2권은 교육과정 1권의 각 단원에서 수업 소재로 쓰

일 내용으로 구성된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2권: 학습 내용(Bioethics Core Curriculum Section 2: Study Materials)’이다. 그 후, 2011년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 1, 2권이 추가로 개발되었다. 사례집 1권은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 1권: 인간 존엄성과 인권(Bioethics Core Curriculum Casebook 1권: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이며, 2권은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 2권: 이익과 해악(Bioethics Core Curriculum Casebook 2권: Benefit and Harm)’이다. 생명윤리교육자나 생명윤리분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유네스코 웹사이트를 통해 유네스코생명윤리교육과정의 저서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III.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과 사례집의 내용 구성

1.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1권(Bioethics Core Curriculum Section 1: Syllabus)은 윤리적 원칙들을 기반으로 한 교수요목이다. 1권을 가르칠 교수자들은 획기적이면서도 틀에 박혀있지 않은 교수요목 구조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윤리 교육과정은 생명의 시작과 끝에 관한 쟁점을 다루는 특유의 의학적 딜레마들이 주로 체계적이기보다는 사례별(case by case)로 나열되어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서로 연관되지 않는 개별적인 사례를 다루는 방식보다는 명확한 학습 계열에 따른 딜레마 교육 방식이 학습자가 학습 목표와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핵심 교육과정은 선언에 나타난 생명윤리적 원칙들을 정교화한 교수요목을 계열(sequence)로 하여 단원이 설계되었다. 이 설계의

주된 논리적 근거는 단원의 요목이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생명윤리원칙에 기반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1].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1권: 교수요목(Syllabu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의료, 보건, 생명 과학에 있어 윤리적 문제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윤리적 결단에 있어 합리적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생명윤리선언의 윤리적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권은 총 30시간 분량의 17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권도 이와 동일한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의 구성을 살펴보면, 1단원 윤리란 무엇

<Table 1>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1권: 교수요목

단원 1	
단원 학습 목표	1. 학생들은 다른 논쟁들로부터 윤리적 논쟁을 인식하고 구별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 2. 학생들은 윤리적 논쟁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
교수요목 개요	1. 도덕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b. 윤리학의 세계 c. 의무에 대한 보편적 경험 d. 도덕 경험은 보편적이지만, 일부 도덕적 인식 및 판단은 다양하다. e. 인간 도덕성의 보편성 및 다양성 f. 도덕적 진술
	2. 도덕 판단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3가지 문장 유형 b. 표면적 문법과 심층적 문법 c. 도덕적 증거와 도덕적 판단
	3. 추론으로써의 윤리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첫 번째 단계: 사실숙고 b. 두 번째 단계: 가치숙고 c. 세 번째 단계: 의무숙고 d. 네 번째 단계: 시험 일치도 e. 다섯 번째 단계: 결론
교수자 매뉴얼	1. 도덕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b. 윤리학의 세계 c. 의무에 대한 보편적 경험 d. 도덕 경험은 보편적이지만, 일부 도덕적 인식 및 판단은 다양하다. e. 인간 도덕성의 보편성 및 다양성 f. 도덕적 진술
	2. 도덕적 판단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3가지 문장 유형 b. 표면적 문법과 심층적 문법 c. 도덕적 증거와 도덕적 판단
	3. 추론으로써의 윤리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첫 번째 단계: 사실숙고 b. 두 번째 단계: 가치숙고 c. 세 번째 단계: 의무숙고 d. 네 번째 단계: 시험일치도 e. 다섯 번째 단계: 결론

<Table 2>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2권: 학습 내용

단원 1	
제목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단원 학습 목표	
1. 학생들은 다른 논쟁들로부터 윤리적 논쟁을 인식하고 구별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 2. 학생들은 윤리적 논쟁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학습 내용	
사례 1: 윤리와 법	
사례	17세의 소녀가 패혈성 임신중절(septic abortion)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녀는 부모와 좋은 관계가 아니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지방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임신중절을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환자는 패혈증이었고, 혈압은 안정적이었으며,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그녀의 부모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았지만, 의사는 부모의 동의없이 환자를 치료했을 때의 법률적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사례 2: 이익들 간의 충돌	
사례	76세의 매우 부유한 여자는 약한 치매증상(mild dementia)을 보이고 있다. 그녀의 자녀는 어머니가 재산을 가로채려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려는 것에 대해 의사에게 불만을 호소했다. 자녀들은 상속을 걱정했고, 의사에게 어머니가 재정적 상태를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는 환자에게 자녀들의 방문에 대해 충고했고,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 자신은 같은 종교단체의 일원이다.
읽기자료	본 단원에 읽기자료는 없음
영화: 12명의 성년 사람들(1957, 감독: 시드니 루멧)	
비디오/영화	• 12명의 성년 사람들은 걸보기엔 명백한 살인사건 재판 사례에서 ‘사실’을 듣고 난후 초조하게 심사숙고하게 된다. 이들은 예리하게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는 12명의 각계각층의 배심원들이다(모두 남자, 대부분 중년, 백인, 중산층).

인가, 2단원 생명윤리란 무엇인가, 3단원 인간 존엄성과 인권, 4단원 이익과 해악, 5단원 자율성과 책임 등이다.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1권은 한 단원 내에서 세부적으로 학습 목표, 교수요목의 개요, 교수자 매뉴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문을 표로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Table 1>.²⁾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1권에서는 교육과정을 완료한 후, 학생에 대한 평가 방안으로 글쓰기, 수행과제, 사례분석, 발표, 에세이, 구두시험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1권은 여러 방식으로 활용가능한 공통의 틀을 제공하지만,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2권의 초점은 다르다. 필자들이 보기에 2권의 문제의식은 생명윤리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맥락과 문화적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과 상황 하에서 특정한 가치 체계 및 윤리적 관점들

2) UNESCO, Bioethics Core Curriculum Series Section 1: Syllabus. Paris : UNESCO, 2008 : 4. 교수자 매뉴얼의 세부 내용이 방대하여 지면 관계상 소재목만 소개하고 모두 담지는 못했다.

<Table 2> Continued

	<p>짜끼리 말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게임은 학생들이 서로를 알도록 도와주며, 참여를 증가시킨다. 학생들이 가능한 한 다음 주제에 따라 그들이 다음 사람에게 말하도록 하라. 법률적 체계는 항상 최대한의 윤리적 결과를 가져온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잘못된 일이다. 미성년자들을 위한 긍정적 차별은 사회에서 개선되고 있다.
역할극	
	<p>모둠 토의</p> <p>사례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자 매뉴얼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사례 1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6명을 한 모둠으로 나누어라. <p>모둠 토의 영화에 관한 모둠 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을 감상 후, 내용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로 시작한다. 교수자는 논쟁을 조직하고, 수행해야 한다. 논의의 목표는 영화에 관해 심사숙고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심사숙고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ESCO Global Ethics Observatory (GEObs) Database on Resources in Ethics: http://www.unesco.org/shs/ethics/geobs

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례들은 보건 시스템과 국가, 종교적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2권은 수업 자료로 쓸 만한 읽기 자료, 영상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교수자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교수자들에게 자신들의 국가에서 학습 자료를 찾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배려를 담은 생명윤리 핵심 교과과정 2권의 1단원을 살펴보기로 하자<Table 2> [3].

Table 2와 같이,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1권: 교수요목(Bioethics Core Curriculum Section 1: Syllabus)과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2권: 학습내용(Bioethics Core Curriculum Section 2: Study Materials)은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1권의 교수요목은 ‘생명윤리선언’에서 합의된 윤리적 원칙들을 바탕으로 생명윤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학습을 핵심으로 총 17차시(1차시 60분)를 수행하게 한다.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2권은 1권의

17차시와 대응하여 1권의 각 차시에 해당하는 윤리적 원칙들에 대한 사례와 학습 자료를 제시하여, 생명윤리 수업이 윤리적 원칙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들에 대한 설명과 이에 관한 사례 및 보충 자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

2011년 개발된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은 전 세계 국가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의료, 생명과학 기술 관련 판례들을 통해, 사례에 내포된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 1권(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총 30개의 사례연구로, 사례집 2권(이익과 해악)은 총 33개의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사례 연구는 사례에 관한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 사례에서 발견되는 딜레마에 관한 질문,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법원의 결정 및 판

결 내용, 토론 제안의 과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 1권은 2005년 선언된 생명윤리와 인간 권리에 관한 보편 선언 제3조에 근거한다. 제3조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인간존엄성과 인권

- a) 인간존엄성, 인권, 기본적 자유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 b) 개인의 이익과 복지는 과학이나 사회만의 이익에 우선하여야 한다[2].

이 선언에 나타난 인간존엄성은 모든 인간 존재가 누려야만 하는 것이며, 인간 권리의 원천이다. ‘인간존엄성’이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을지라도 국제 협정서에서 다양한 맥락으로 표현되고 있다. 최근 국제법, 헌법, 그리고 표준 공문서에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용어는 인간 권리와 연관되어 쓰이고 있다. 1948년 인권에 대한 보편 선언 1조에 따르면, 모든 인간 존재는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인간 존재의 본래적 존엄성 위에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한다. 유럽 회의는 오비에도 협약에서 개인으로서, 인간 종의 구성원으로서 인간 존재를 존중할 필요성과 인간 존재의 존엄성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인간 존엄성의 인식은 인간 권리에 대한 적극적 존중으로 나아간다. 사회는 인간 존엄성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그 사회의 구성원을 존중해야만 한다 [4]. 이러한 인간존엄성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 1권에 포함된 사례들이 수집되었으며, 학습자들이 각각의 사례에 있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숙고할 수 있도록 서술되고 있다.

한편,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 2권의 제목과 주제는 ‘이익과 해악’이다. 사례집 2권은 생

명 윤리와 인간 권리에 관한 보편 선언(2005) 제4조에 따른다.

제4조 이익과 해악

과학 지식, 의료 및 관련 기술들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때 환자, 연구자, 기타 그 영향을 받는 개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익을 최대화하여야 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가능한 해악이라도 최소화하여야 한다[2].

이익과 해악은 의학적 수행이나 과학적 지식을 인간에게 적용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익과 해악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환자와 보호자들 및 영향 받을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하여야 하여 영향을 끼칠 어떤 가능한 해악도 최소화해야만 한다. 유네스코 생명 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 시리즈의 일부로써, 이 사례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과학적 진보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윤리학적 가치를 심어 주려 한다. 또한 생명윤리와 인간 권리에 대한 보편 선언(2005)에서 소중히 여기는 ‘이익과 해악’에 대한 윤리적 원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 사례집은 33개의 사례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사례는 판례의 입장과 윤리학적 문제의식이 포함된 형태이다[1]. 사례집의 각 사례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토론할 것을 제안하는데, 교수자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가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Table 3>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

		사례 연구 1
제목	사생활	
사례	닥터 D는 외과 수술 중 칼에 베었는데 다음날 HIV 바이러스 혈액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병원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환자들에게 닥터 D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닥터 D는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며 자신의 정보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Q&A	질문:	병원에서는 닥터 D의 병명을 밝혀야 할까요?
	찬성	의료 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대	병원이 닥터 D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찬성	닥터 D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이다.
	반대	의사들은 HIV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사례	법원 결정	법원은 병원이 닥터 D의 신원과 HIV에 관한 정보의 조건부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정보	법원 판결문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닥터 D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닥터 D가 참여한 외과 수술 환자 대중 매체에 수련 중인 의사라고 밝힐 수 있음
	토론: 사생활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의 권리와 상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다른 권리들과 이익들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비밀 보장의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인간 존엄의 권리와 균형을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IV.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을 활용한 생명의료윤리교육 방안

1.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을 활용한 딜레마 토론³⁾ 교육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의 수업 방법은 사례집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체계를 통해 드러난다. 다음에 필자들은 사례집 본문 내용 중 1차시를 표로 요약해보았다<Table 3>[4].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 1, 2 권의 내용 전개는 위의 표와 같은 체계로 구성이 동일하며, 각 권은 ‘생명윤리선언’의 세부 조항에 따라 주제가 나뉘어져 있다.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의 체계가 논쟁과 토론 위주의 교수학습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필자들이 보기에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통한 교육방법과 인지적 갈등을 통해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키고자 한 도덕 발달 교육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산파술로 알려지고 있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대화와 질문을 통해 인격 전체를

3) 콜버그의 이론에 근거하여 몇몇 학자들은 도덕적 딜레마 토론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그 중 갤브레이스(R. E. Galbraith)와 존스(T. M. Jones)는 (1) 도덕적 딜레마 직면, (2) 학생들로 하여금 딜레마에 대한 잠정적 결론 진술, (3) 딜레마에 대한 추론 검증, (4) 추론 근거 반성의 과정을 제안했다.

흔들어 놓는 정신적 지진을 일으키며, 그것은 또한 편견과 무비판적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5]. 현대의 도덕교육철학자 콜버그는 도덕교육⁴⁾의 방법으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콜버그는 덕을 가르칠 때 학생 스스로가 선의 지식에 관해 불만을 느끼도록 부추기는 소크라테스적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 학생들을 노출시킨 후에 동료들과 충돌하고 논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덕 발달 단계⁵⁾가 향상된다는 것이다[6]. 이에 따라 윤리교육에 있어 교수자의 역할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도덕 판단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추론들을 접하게 하는 데 있다. 교수자는 학생들의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덕 딜레마를 제시하며,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갈등을 느끼는 학생들은 각기 다른 추론을 통해 근거의 정당성을 접하게 되는데, 도덕발달론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덕 판단 수준이 높아진다고 본다. 즉,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학생들은 타인들과 토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도덕판단수준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교수법은 흔히 ‘+1 전략’이라고 알려진 교수 방법으로써 학생들에게 인접 단계가 지니고 있는 장점들을 접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 단계를 상향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7].

콜버그는 황금률의 의무적 수행을 강제하기보다는 도덕적 행위 주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가를 검토함으로써 행위 주체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적 행위 주체가 도달한 판단의 근거를 통해 학습자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가늠할 수 있다[6]. 그러므로 행위로 인한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의 유무가 분명하지 않을수록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천적 판단력[8]⁶⁾이다.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은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선언에 포함된 윤리적 원칙에 근거한 구체적 딜레마 상황을 고민하게 한다. 학습자들이 윤리적 원칙과 딜레마 상황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근거를 찾아 논쟁과 토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4) 도덕교육에 대한 접근은 주로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인지론적 접근, 둘째, 정의적 접근, 셋째, 행동적 접근이다. 이 중 콜버그의 도덕발달론은 인지론적 접근에 해당한다.

5) 콜버그는 일정 연령대와의 면담을 통해 인간에게는 나이와 관계없이 그들 자신의 판단방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는 도덕적 사고발달의 보편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단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 단계는 3수준 6단계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인습 이전 수준	단계 1	차별과 복종 단계
	단계 2	도구적 상대주의 단계
인습 수준	단계 3	상호 동조 혹은 착한 아이 단계
	단계 4	사회유지 단계
인습 이후 수준	단계 5	사회계약 단계
	단계 6	보편윤리의 원리 단계

6) 단순한 결단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침이 가지나 의무의 보편성에 포섭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는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를 주어진 보편에 포섭시키는 (규정적) 판단력은 자연 과학적 인식의 차원의 논리적 판단력이 아니라 행위나 행위 규칙을 가치 원칙에 포섭시키는 순수한 실천적 판단력이다.

2.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사례집 교육 평가 방안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 교수요목 1권(Bioethics Core Curriculum Section 1: Syllabus)에 따르면 교육을 완료한 후, 학생에 대한 평가 방안으로 글쓰기, 수행과제, 사례분석, 발표, 에세이, 구두시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1권은 평가에서 다른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교육자의 재량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들은 이러한 평가방안을 유네스코의 모든 회원국에서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기에, 해당 국가의 방식에 맞게 평가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이 논쟁과 토론을 주된 교육 방법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는 평가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콜버그는 도덕판단 능력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도덕판단 면담검사(The Moral Judgement Interview, MJJ)를 활용했다. 이것은 피험자에게 가상의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을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임상 인터뷰 방식의 도덕성 측정 방법이다. 콜버그는 인터뷰 방식인 도덕판단 면담검사(MJI)를 통해 피험자들에게 인권, 인간생명의 가치 등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을 내포한 갈등 상황(딜레마)를 제시한 후, ‘어떻게 할 건가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등을 묻고, 얻어진 반응을 분석하여 피험자들의 판단의 근거에 따라 3수준 6단계의 도덕적 발달 단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성 측정 방식은 채점의 주관성, 집단검사의 어려움, 긴 면담시간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9].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미네소타대학의 레스트(J. Rest)가 DIT⁷⁾를 제작하였다. DIT는 인터뷰 대신 피험자로 하여금 직접 평가하도록 개발되었다. 이 평가방법은 단체적으로도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채점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제공한다. DIT는 완성형(full form)과 간편형(short form)으로 나뉜다. 완성형 DIT는 6개, 간편형 DIT는 3개의 도덕 딜레마를 활용한다. 완성형은 ‘남편의 고민(Heinz and the drug)’, ‘학생 시위(student take-over)’, ‘탈옥수(escaped prisoner)’, ‘의사와 환자(the doctor’s dilemma)’, ‘고용주의 처지(Webster)’, ‘학생신문(newspaper)’의 여섯 개 딜레마로 구성되어 있고, 간편형은 ‘남편의 고민(Heinz and the drug)’, ‘의사와 환자(the doctor’s dilemma)’, ‘고용주의 처지(Webster)’의 세 개의 딜레마로 구성되어 있다. DIT의 첫 번째 과제는 딜레마를 읽고 딜레마 속 주인공의 입장에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딜레마에 대한 12개의 문항을 읽고 중요도를 정한다. DIT의 마지막 과제는 12개의 문항 중 가장 중요한 질문 4개를 골라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9].

검사자는 피험자 스스로 평가하고 순위 매긴 결과로부터 객관적인 도덕판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DIT의 P(%)점수는 피험자가 원리화된 도덕적 사고 수준을 나타내는 5단계와 6단계에 해당하는 문항에 중요도를 부여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피험자가 12개의 진술문 중 5, 6단계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최고 단계로 정한 경우 P(%)점수는 높아진다. P(%)점수는 0~95 범위의 수치로 나타나며, 높을수록 피험자의 도덕판단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이며,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0이다[9].

7) 채점 방법은 문용린 책 『한국인의 도덕적 발달 진단』 부록에 수기채점법과 컴퓨터 채점법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V. 결론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의 직업윤리에 배치되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직업의식을 강화할 목적으로 ‘안전 면허 개선방안’[10]을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은 의료인이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 복지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의사 개인에게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의료윤리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의료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이라 주장한다[11]. 이들은 정부의 저수자 정책이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조장한다고 보며, 한국 의사들의 인성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안전면허개선제도 찬성론자들은 의료인들의 직업윤리교육 부족을 지적하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전문직 교육 프로그램이 윤리교육 전문가들과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협력하에 개발될 필요가 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윤리교육을 개발하고 수행할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12]. 현재 의료현장의 의료인들에게 의료윤리를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생명의료윤리 관련 서적들이 출판되어 있으며, 의학 관련 대학 및 생명 과학 관련 기관에서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들이 보기에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료윤리교육 교재들은 연관성이 부족한 사례들의 법적, 의학적 해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즉, 현재 한국의 생명의료윤리교육은 의료사태에 대한 입장을 논쟁적으로 다루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윤리적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충분히

소개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 필자들은 앞선 세대의 존경할 만하게 보이는 임상 의료인들의 설명을 듣는 것이 중심이 되는 교육보다는, 학습자의 참여로 말미암은 도덕적 사고력의 향상과 이로부터 비롯되는 도덕적 실천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작업을 도덕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업에 콜버그의 학습방법은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에 기초한 사례중심의 논쟁적인 토론중심 교육이 비판적 사고력 함양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여러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콜버그 자신의 연구와 네오클버그 학파인 레스트에 의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콜버그는 자신의 도덕발달이론을 통해 행위자가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실천적 판단력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필자들이 보기에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딜레마 사례를 통해 협력을 통한 실천적 판단을 숙고하게 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찾는 토론과 논쟁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네스코는 생명과학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윤리교육프로그램(Ethics Education Programme, EEP)의 일환으로 2008년과 2011년에 걸쳐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각 회원국에 보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생명윤리 및 인권 보편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을 소개하는 학술논문은 11편 정도 있으나,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UNESCO Bioethics core curriculum)에 관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⁸⁾ 이러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필자

8)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검색 결과, ‘생명윤리 및 인권 보편 선언’으로 검색 시 국내 학술 지 3건,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으로 검색 시 국내 학술 지 11건, ‘UNESCO Bioethics core curriculum’으로 검색 시 국내 학술지 0 건이었다(검색일: 2016. 6. 13).

들은 생명의료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인류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이 국내 생명의료윤리교육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으로 본 논문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그간 국내에서 다루지 않았던 UNESCO 인권선언을 의료윤리의 분야에 적용하여 소개하게 되어 국제적 표준에 바탕을 두고 일관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면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논문의 논의가 논증의 과정을 생략한 채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에 치우쳐 있다. 그리고 필자들은 유네스코 생명윤리 핵심 교육과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생명의료윤리교육과정보다 더 탁월하거나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물론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필자들의 과제이다. 본 논문에 대한 오해로 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예상한다. 먼저 본 논문이 새로운 생명의료윤리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들은 기존의 생명윤리 교육 교재들이 사례 중심의 해설 및 임상적 판단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도덕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예상되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오해의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다. 필자들은 새로운 생명의료윤리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개발한 생명의료윤리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필자들은 기존윤리 교재들의 단점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필자들은 유네스코 과정을 좀 더 교육의 무게 중심을 학습자 위주로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네스코 과정의 사례들은 각 국가들의 법정에 올랐던 판례에 기반한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학습법만을 고수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학습법 중에서 교수자가 선택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교육과정에 유동성과 융통성을 구체성에 맞게 강조하고 있다.

필자들은 한국에 유네스코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즉 유네스코 교육과정의 소개를 통해 기존의 한국생명의료윤리교육을 유네스코 교육과정으로 대체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더욱 풍부하고 깊어지기를 희망한다. ㉞

REFERENCES

- 1) UNESCO. Casebook on Benefit and Harm, Bioethics Core Curriculum Casebook Series, No. 2, Paris : UNESCO, 2011 : 9.
- 2)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UNESCO Sitemap, Available from: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bioethics/bioethics-and-human-rights/> [cited 2016 May 31]
- 3) UNESCO. Bioethics Core Curriculum Series Section 2: Study Materials, Paris : UNESCO, 2008 : 7-9.
- 4) UNESCO. Casebook on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Bioethics Core Curriculum Casebook Series, No. 1, Paris : UNESCO, 2011 : 7.
- 5) 문성학. 소크라테스적 사유의 본질. 교육연구지 1990 ; 32 : 16-17.
- 6) 김진. 콜버그의 윤리상대주의 비판과 도덕교육의 과제. 범한철학 2011 ; 63 : 319.
- 7) 박병기, 추병완. 윤리학과 도덕교육 1. 고양 : 인간사랑, 1999 : 62.
- 8) 김종국. 사회적 맥락 내에 있는 원칙: 의료윤리와 판단력. 철학연구 1999 ; 53 : 338.
- 9) 문용린.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 진단: 한국판 도덕판단력 검사의 개정 및 재표준화. 아산재단 연구총서 2011 ; 312 : 21-22.
- 10)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 제도 대폭 강화'. 2016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 [cited

- 2016 Jul 1]
- 11) '문제는 의사의 인성이 아니라 제도'. 메디게이트 뉴스(2016. 4. 5). Available from: <http://www.medigatenews.com/news/2617206570>
- [cited 2016 Jul 1]
- 12) 최경석. 한국의 생명윤리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논문집 2014 ; 69 : 290.

Exploration of the Biomedical Ethics Education Module Used in the UNESCO Bioethics Core Curriculum

BAEK Ji Yeon*, LEE Eun Ae**, JEONG Chang Rok***,****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biomedical ethics education module that is used in the UNESCO Bioethics Core Curriculum. Many universities across several countries have not yet incorporated bioethics into their curriculums. We believe that introducing UNESCO Bioethics Core Curriculum Casebook Series in universities will provide an incentive to include such a module in study programs, thus offering a strong foundation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biomedical ethics. In this article, the authors describe how they introduced teachers and students to the UNESCO-Bioethics Core Curriculum, based on the 2005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and then examined the model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provided in the UNESCO Bioethics Core Curriculum Casebook Series. As per the curriculum, the authors suggest that the teaching module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four elements: objectives, content, methods, and evaluation.

Keywords

UNESCO, bioethics, biomedical ethics education, debate class, bioethics curriculum

* Teacher, Dongchong Middle School;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Teacher, Seongju High School;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Department of Medical Law & Eth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sian Institute for Bioethics and Health Law, Yonse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Current affiliatio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